

특별기고

‘우분투’ 정신의 복지 교육으로 복지 선진국 만들자



정기연  
前 영암신북초등학교교장

우분투(Ubuntu)는 아프리카의 코사족 언어로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건국이념은 우분투 정신이다.

남보다 더 일하고 노력하여 가진 자가 되고 가진 자가 된 것은 상대인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라 하며 가진 것을 다시 베풀면서 사는 정신이다. 나 혼자 일일이 되고 자기만 정상에서 잘살려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즐거움으로 서로 돕는 정신이다.

우리 사회에는 일등 하기를 바라지만, 일등으로 베푸는 데는 지극히 인색하다.

우리나라가 60년대 어려웠던 보릿고개 시대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 노래를 초등학교 학생들이 애창했고 마을에는 아침마다 스피커에서

새마을 노래가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러한 어려웠던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고 자란 사람들이 오늘날 50세 이상의 나이가 되어 이들이 한국에 기적을 일으켜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생산품을 만들어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을 만들었다. 나와 너를 합하면 우리가 된다. 내가 잘살고 내가 잘살면 우리가 잘사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세’ 꿈은 이루어져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분투 정신으로 베풀면서 사는 복지 교육을 하여 ‘우리도 보람 있게 베풀며 사는’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 교육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면서 사는 인간 교육이다. 복지 사회란 특정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좋은 시설과 혜택을 받으며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말한다. 복지 국가 복지 사회는 모든 국민이 잘살기 노력을 하고 부자가 되어 가진 것을 이웃과 사회에 베푸는 것을 보람으로 실천하며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사회다.

그러므로 복지는 혜택을 받는 것보다 베풀면서 사는 보람에 사는 삶이다. 이웃이나 국가가 베푸는 시설과 자료의 혜택에만 기대하며 도움만 받고 사는 사회는 복지 사회가 아니라 거지들이 모여 사는

사회다. 그러므로 복지 사회 복지 국민이 되려면 우분투 정신으로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노력하여 풍족한 부자가 되어야 하며 내가 가진 부(富)를 베푸는데 노력해야 한다.

도움을 받는 복지보다 내가 도움을 주는 복지에 노력 해야 하며 질서를 지키고 쓰레기를 줍고 국가에서 복지시설로 만들어준 시설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도 위대한 복지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이 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복지 정신으로 돕는 복지를 실천하며 살면 더불어 행복한 사회 행복만 복지 선진국이 된다. 일찍 선진국이 되어 그릇된 복지 시책으로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만 받고 국민은 국가 사회에 혜택 줄 생각이 없고 사는 사회는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복지 사회를 만들려면 복지 국민 교육부터 잘해야 한다. 새마을 노래를 부르며 복지 교육을 받고 교육 평가로 경쟁하며 자란 학생과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교육 평준화관 시책 속에서 교육이 평가를 소홀히 하고 복지 혜택만 받고 자란 학생의 미래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전자는 더불어 잘사는 복지 사회 복지 선진국을 만들고 후자는 복지 혜택에만 의존하는 거지들이 사는 후진국이 될 것

이다. 그러므로 복지 국가 복지 사회는 올바른 복지 교육이 만든다.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지방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을 선출했다.

당선된 교육감은 복지에 대한 그릇된 생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교육 예산을 소모적인 학교 시설과 학교 급식을 비롯한 복지 혜택을 받는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근본인 바른 인성과 실력을 길러 앞으로 복지 사회 복지 국가의 주인이 될 유능한 복지 국민이 되도록 복지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보 교육의 혁신 학교는 국가로부터 혜택만 받는 학교가 아니라 외부의 도움 없이 자조 자립하고 일일 일선(一日一善)의 복지 교육에 앞서는 복지 인간 교육을 하는 학교가 되어야 하며 베풀기 위한 복지 저금통장을 만들어 근검저축 해야 한다.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에 위치한 나우루 공화국이 부존자원인 인광석에 의존하고 국민은 복지 혜택만 받고 자랑하며 살았지만, 인광석 채굴이 바다나 자 국가가 존폐위기에 섰다는 뉴스를 보고, 우리는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정치를 해야 하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은 우분투 정신으로 복지 교육을 실천하여 복지 선진국을 만들어야 한다.

社說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교육은 미래 인재를 기르는 중장대한 일이므로 백년 앞까지 멀리 내다 보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에서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교육 행정가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바뀌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른바 ‘자사고’라고 불리는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2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령 개정도 그 중 하나다. 개정된 법령은 교육현장에서 펼쳐보기도 전에 다시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헌법 재판소는 최근 자사고 지방생들의 일과 2중 지원을 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사고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초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현재의 제도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현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와 12월에 뽑는 후기로 나뉜다. 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과학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후기에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입학전형을 일원화했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만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교육 행정가들은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하루아침에 정책이 뒤바뀌어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른바 ‘자사고’라고 불리는 자율형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 2중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만든 법령 개정도 그 중 하나다. 개정된 법령은 교육현장에서 펼쳐보기도 전에 다시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헌법 재판소는 최근 자사고 지방생들의 일과 2중 지원을 막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자사고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올해 초 이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현재의 제도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현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행할 수 없게 됐다. 고교 입시는 일정에 따라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와 12월에 뽑는 후기로 나뉜다. 과학고·자사고·외고·국제고는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현재 결정이 나오자 교육부는 개정 시행령대로 고교입시를 후기로 1원화되던 가처분이 인용된 이종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교육부는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가 본안 심판에서도 ‘자사고·외고 2중지원 금지’ 법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사고·외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번 6·13선거에서 전국 14곳을 휩쓴 진보교육감들도 모두 ‘자사고·외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교육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공약이라고 해서 대책 없이 자사고·외고 폐지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자사고·외고에 대한 정책 자체부터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독자기고

노인학대 인식 개선,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어린 시절 어른을 공경해야 하는 효 교육을 받고 자라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세대 간 갈등과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변화 원인으로 인해 노인 인권보호 인프리카 미약해 학대 받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울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80대 치매 노인을 봉대로 침대에 묶어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는데, 이는 노인보호기관에서 비인권적 노인 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2017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1만3천309건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천62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무안경찰서는 인권 친화적 제도 도입을 위해 무안 인권경찰서를 자체적인 사책으로 개발하고 인권향상추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 무안경찰서는 노인 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지정하는 한편, 현장

파출소를 노인 인권테마 파출소로 시범 운영해 현장중심 노인 인권보호 경찰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경파출소는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민 발착형 탄력순찰을 통해 치매 노인을 우선 돌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노인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런 활동과 연계해 노인 학대 예방 홍보와 인권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나무의 ‘나이트’가 그러하듯 사람의 주름살은 그가 살아온 세월과 슬픈 시련을 이겨 낸 흔장이기도 하다. 한 평생 가족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던가?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징후가 보이면 신고를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특성상 은폐 가능성이 높아 깊은 관심을 갖고 신고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할 때이다.

/양현우 무안 현경파출소

독자기고

여름철 자외선 투과방어 생활화

6월의 시작부터 날씨가 30도를 웃돌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불볕더위의 기세가 대단하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철 날씨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예정이고 전반적으로 올 여름은 더 더울 예정이다 폭염일수가 증가한다고 한다.

폭염(暴炎)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가 발생되며,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폭염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직장에서나 또는 여러 야외활동을 할 때 우리 스스로 대처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먼저 뜨거운 한 여름에는 사전에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에 매일 주목하고 수시로 확인해 외출을 해야 하거나 야외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계획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과

병행하며 활동해야 한다. 12시부터 17시 사이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햇볕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만 격렬한 운동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변 사람이나 동료의 건강을 살펴보고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와 노인들을 혼자 두지 말고 날음식은 섭취를 자제하고 개인 위생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변의 누군가가 두통, 어지러움, 구토, 발한, 경련 등의 열질환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환자의 의복을 제거하고 햇빛이나 열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가능한 빨리 이동시킨다. 겨드랑이, 목 부위에 아이스 팩을 대주어 체온을 낮춰야 한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 전해질 함유된 음료나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 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더위와 관련된 정보에 귀 기울이고 대비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 /백중희무안소방서 백중희 민원팀장

전남도민일보

등록번호 광주기25(일간)

회장 김 경	발행·편집인 전광선
사장 이문수	편집국장 김영민
대표전화 062)227-0000	광고문의 062)227-0083
누리집 www.jndomin.kr	팩스 062)227-0084
구독료 월 10,000원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 33-4) 소석빌딩 5층 (우)61247	

전남도민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2580@jndomin.kr 전화 (062) 227-0000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www.jndomin.kr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 eco city

자연보호는  
인간의 생명이며 희망입니다